

# 휴게소 찾은 노형욱 장관 “사각지대 없는 방역망 구축” 강조

- 3일 안성휴게소 찾아 방역점검·폭염 속 근로자 안전 최우선 당부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계 휴가철이 한창인 8월 3일,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(서울방향)를 방문하여, 코로나-19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  
- 노 장관은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, 출입 시 발열체크 및 명부 작성, 소독·환기 등 휴게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.
  -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노 장관은, “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, 여러 지역에서 오신 이용객들이 휴게소를 찾으시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고강도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한 뒤,
  - “엄중한 상황 이므로 모두의 경각심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”을 당부하면서 현장 근무자에게 개인 방역물품을 전달하였다.
  
- 아울러, 노형욱 장관은 한국도로공사에 “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고속도로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 안전대책에 더욱 힘써 달라”고 강조한 뒤,
  - 폭염으로 인한 도로 솟음 등 시설물 파손에 대비해서도 “사전점검 등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확립”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.

2021. 8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